



검찰연합일보 모바일 보기



고위공직자범죄신고  
02-6320-0200



## 푸틴, “北위성 개발 도울것” 김정은, “바쁜 일정 초대해줘 감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오른쪽)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러시아 극동 아무르 지역 보스토치니 우주기지 에서 만나 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이날 두 사람은 지난 2019년 4월 회담 이후 4년 5개월 만에 대면했다.

### 북러 정상 4년 5개월만에 대면...보스토치니 우주기지서 회담 북·러 정상 회담 후 만찬 예정...무기 거래 논의 여부에 관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13일(현지시간) 러시아 극동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서 4년 5개월 만에 성사됐다.

타스·리아노보스티 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현지 시각으로 이날 낮 12시 30분께 북러 정상회담 장소인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 도착했다.

전날 오전 전용 열차를 타고 러시아에 들어온 김 위원장은 푸틴 대통령보다 30여분 정도 뒤인 오후 1시께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 왔다.

러시아 뉴스 채널 로시야 24에 방영된 영상에서 푸틴 대통령은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 도착한 김 위원장과 악수하며 “당신을 만나서 정말 반갑다”며 “이곳이 우리의 새로운 우주기지이다. 당신께 보여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김정은 위원장은 푸틴 대통령에 “바쁜 일정에도 초대해 줘서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현지 뉴스채널 영상에서 푸틴 대통령은 회담에 앞서 김 위원장과 함께 걸으면서 기지 내 시설을 소개했으며, 김 위원장은 방명록도 작성했다.

푸틴 대통령은 북한의 인공위성 개발을 도울 것인지를 묻는 매체 질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온 것이다”며 “김 위원장은 로켓 기술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들은 그들의 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

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과의 군사, 기술 협력 논의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는 서두르지 않고 모든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타스·인테르팍스 통신 등은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이 소유스-2 우주 로켓 발사 시설을 시찰했으며, 보스토치니 우주기지 내 ‘양가라’ 미사일이 조립 중인 발사체 설치·시험동에서 약 3시간 동안 회담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역대 정세와 국제 정세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북러 정상은 회담 후 만찬도 개최할 예정이다.

앞서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번 북러 정상회담이 무역, 경제적 유대, 문화 교류 등 양국 간 협력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또 인테르팍스 통신은 페스코프 대변인이 회담에서 무기 거래가 논의될지에 관한 질문에 “물론 이웃 국가로서 공개나 발표해서는 안 되는 민감한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달 초 서방은 김 위원장이 이달 10~13일 동방경제포럼(EEF) 기간에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무기 거래 문제를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또 2019년 4월 김 위원장이 러시아를 첫 방문할 당시와 똑같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이번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내다봤으나, 북러 정상은 최첨단 우주시설인 보스토치니 우주기지를 회담 장소로 택했다.

보스토치니 우주기지를 방문한 외국 정상은 김 위원장이 처음은 아니다.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 미안마 군정 수장 민 아웅 흘라잉 최고 사령관 등도 이 시설을 찾은 바 있다.

김 위원장은 회담을 마친 뒤 하바롭스크주 산업도시 콤포몰스쿠나야무레의 수호이 전투기 생산 공장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 송원기 기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왼쪽부터),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의 2차 개각 발표 브리핑에 배석하고 있다.

### 尹 대통령 2차 개각 발표, 국방장관 신원식 문체부장관 유인촌·여가장관 김행 후보 지명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국방부 장관 후보에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에 유인촌 대통령실 문화체육특보, 여성부 장관 후보에 김행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을 각각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2차 개각을 발표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국방부 정책기획관, 수도방위사령관,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합참 차장을 지낸 예비역 육군 중장이다. 대통령실은 신 후보자가 현재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어 각종 현안에 적극 대응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초대 문체부 장관을 지냈으며, 지난 대선 기간 당시 윤 대통령에게 문화·체육계 정책을 조언해 오다 지난 7월 대통령실 문화체육특별보좌관에 위촉됐다.

K-컬처의 한 단계 도약과 글로벌 확산을 위한 책임자라는 게 대통령실

평가다.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 대변인을 지냈으며, 여가부 산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을 지냈다.

대통령실은 김 후보자가 언론·정당·공공기관 등에서의 다양한 경험으로 소통 능력을 가진 만큼, 폐지가 거론되는 부처 전환기의 업무를 처리할 책임자라고 봤다.

윤 대통령은 이날 취임 후 두 번째 개각을 통해 전문성을 고려해 업무 연속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관료 조직에 긴장감을 높여 줬다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6월에는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김영호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장관급인 국민권익위원장에 고검장 출신인 김홍일 변호사를 각각 지명하고, 정부 부처 차관급 인사 13명도 교체해 취임 1년 만에 사실상 첫 개각을 단행한 바 있다.

/ 이민혁 기자



LED 등 고효율 조명 사용하기 0.54kWh/일  
전자레인지 자연해동 후 사용 0.19kWh/일  
비데 온열기능 끄기 0.1kWh/일  
세탁물은 모아서 0.09kWh/일

## 올여름 계획적으로. 1kWh 줄이기 로부터 시작

올여름엔 휴가 계획보다  
에너지 계획을 먼저 세워주세요.  
전기 사용 패턴을 조금씩만 바꾼다면  
어렵지 않게 하루 1kWh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전기 사용이 많아지기 전에 미리미리  
오늘 바로 시작하세요.



하루 1kWh 줄이기 01. 에어컨 설정온도 1℃ 높이고 여름철 실내 적정온도 26℃ 유지하기 0.41kWh/일  
02. 사용하지 않는 조명 소등하기 0.36kWh/일 03.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 뽑기 0.32kWh/일

# 북한, 김정은-푸틴 정상회담 앞두고 탄도미사일 도발

## 합참 “평양 순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 2발 발사”

북한이 러시아와 정상회담을 앞두고 탄도미사일을 기습 발사했다. 합참모본부는 13일 “우리 군은 오전 11시 43분경부터 11시 53분경까지 북한이 순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NHK 보도에 따르면 일본 해상보안청은 탄도미사일 두 발 가운데 먼저 발사된 한 발은 이미 배타적경제수역(EEZ) 밖에 낙하한 것으로 보인다고 이날 오전 11시 46분 발표했다.

일본측 보도가 맞다면 미사일 가운데 한 발은 발사된 지 3분여만에 추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지난달 30일 단거

리 탄도미사일 2발을 쏜 이후 14일 만이다.

특히 이번 미사일 도발은 러시아를 방문 중인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날 오후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시작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뤄졌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고지도자가 국외에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역대 처음으로 보인다”며 “지도자가 자리를 비웠어도 군사대비태세를 철저히 갖추고 있다는 자신감의 표출”이라고 분석했다.

탄도미사일 발사는 북러 정상회담을 겨냥해 연일 경고를 내온 미국에 대한 견제 성격도 있어 보인다.

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11일(현지시간) “(푸틴 대통령이) 국제적인 왕따(pariah)에게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자국 영토를 가로질러 여행할 수밖에 없는 것을 저는 ‘지원에 대한 구걸(begging)’이라고 규정하고 싶다”고 말했다.

홍 연구위원은 “미 국무부의 ‘왕따’ 등 언급에 북한이 미사일 도발로 불쾌감을 표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합참은 “우리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하여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 송원기 기자



장거리 지대공유도무기 L-SAM

## 광화문에 L-SAM·천궁 등장 26일 10년만의 국군의날 시가행진

무기체계 46종 170여대 병력 4천여명 동원...미 8군도 첫 참가

건군 75주년 기념 국군의날 기념행사에서 한국형 3축 체계 핵심전력인 고위력 미사일과 장거리 지대공유도무기(L-SAM) 등이 처음으로 일반인에 실물 공개된다.

국방부는 13일 ‘강한 국군, 튼튼한 안보, 힘에 의한 평화’를 주제로 26일 오전 10시 서울공항공에서 국군의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6천700여명의 병력과 68종 340여대의 장비가 동원된다. 이어 오후 4시부터는 서울 송례문~광화문 일대에서 시가행진도 펼쳐진다. 대규모 군 장비가 동원돼 국군의날 시가행진 분야가 진행되는 것은 2013년 이후 10년 만이다.

기념행사에선 최신 무기체계가 대거 등장한다. 고위력 미사일, L-SAM, 최초의 한국형 전투기인 KF-21, 국산 차세대 소형무장헬기(LAH) 등 국산 개발 장비 8종 27대의 실물이 일반에 처음 전시된다. 드론작전사령부의 정찰 감시·타격 드론도 등장한다. 보병대대 장비들은 개인전투체계인 ‘위리어플랫폼’을 착용하고 등장하며, 무인체계, 유·무인 복합체계인 아미타이거, 한국형 3축 체계 등 첨단 과학기술이 적용된 장비들이 동원된다.

공중분열도 진행된다. 공군의 F-35A, KF-21 등 6종 21대의 전투기가 국군의날 최초로 대규모 편대비행에 나선다. LAH

등 회전익 9종 54대, KF-21 등 고정익 11종 76대가 행사장 상공을 수놓는다. 주한미 공군전력 7대도 참여한다.

한미 최정예 요원 200여명이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보여주었고 실제 공중 침투와 동일한 방법으로 전술강하를 하며 공중에서 다양한 침투 기술을 선보인다.

시가행진에는 L-SAM, 소형드론, 패트리어트 미사일, 국산 중거리 지대공유도무기 천궁 등 46종 170여대의 장비와 병력 4천여명이 동원된다.

제병지휘관의 구호로 장비부대가 먼저 출발하고 보병부대가 뒤따른다. 공중에서는 아파치 헬기와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동시에 4차례 비행한다. 해군의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정조대왕함도 증강현실(AR)로 행진에 동참한다.

서울 한복판 시가행진에서 육·해·공군 3군과 해병대의 통합된 역량을 선보이는 것은 처음이다. 미 8군 전투부대원 등 300여 명이 처음으로 시가행진에 참여한다.

국방부는 “장병과 국민이 군악대·염광고교 마칭밴드, 각 군 마스코트 인형과 함께 서울시청 앞에 설치한 국민사열대에서 광화문광장까지 행진한다”고 설명했다.

기념행사에는 장병, 군인가족, 예비역, 보훈단체, 해외 6·25참전용사와 후손, 일반 국민 등 1만여명이 초청됐다.

튀르키예 네즈멧 야즈즈울루(94)씨, 콜롬비아 클레멘테 칸테로(93)씨 등 19개국 참전용사와 후손 44명이 참석한다.

/ 백현중 기자

## 서울에 전국 첫 스토킹피해 전담조직...초기-사후 원스톱 지원 경찰신고 서울시에 즉시 공유...프로파일러 참여해 보호대책 마련



올특별시  
적년 9월 스토킹 피해자 지원 관련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한 오세훈 시장

‘신당역 살인사건’ 발생 1년이 지났지만 찾아지지 않는 스토킹 범죄의 피해자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가 전국 최초의 전담 조직을 가동한다.

서울시는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 사업단’(이하 사업단)을 13일 출범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를 담당하는 서울경찰과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시청에서 이런 내용의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전국 최초로 경찰청 학대예방경찰관(APO) 시스템을 서울시 생활복지지

보시스템과 연계하는 ‘스토킹 피해자 핫라인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앞으로 경찰에 스토킹 신고가 들어오면 정보 제공에 동의한 피해자에 한해 사업단에 피해자 정보가 즉시 공유된다.

이후 사업단은 피해자 상담과 사례회의 등을 거쳐 필요한 지원대책을 마련한다. 사업단에는 피해지원관과 사례관리사 외에 프로파일러가 참여해 가해자의 심리까지 분석한 피해자 보호 대책을 세운다.

지원 단계에서는 안전 지원 3종(보호시설·민간경호 서비스·이주비)과 일상회복 지원 3종(법률·심리·의료) 대책을 시행한다.

구체적으로 피해자가 잠시 피신해 있거나 장기 거주할 수 있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을 기존 3개소에서 5개소로 확대한다. 여기에는 장기주거 시설 외에 긴급하게 보호가 필요한 스토킹 피해자가 30일간 이용할 수 있는 임시숙소 1곳이 포함된다. 가해자 격리나 피해자 은폐가 어려운 경우 등 고위험 스토킹 범죄 피해자에 대해선 지자체 최초로 2인 1조의 민간경호 서비스를 시작한다.

1일 10시간씩, 총 7일간 경호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범죄 위급성 등 상황에 따라 서비스 기간은 조정 가능하다.

거주지 이전이 필요한 경우 최대 200만원의 이주비를 지자체 최초로 지급한다.

아울러 피해자에게 방문식 전문 심리상담을 10회 제공하고 변호사를 연계해 법률·소송 지원과 의료비 지원을 해준다.

특히 그간 경찰로만 구성됐던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 심사위원회’에 서울시 스토킹 피해지원 전문자문단이 참여한다.

피해상담사, 범죄심리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자문단이 참여하면 더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스토킹 범죄 위험성을 재검토하고 보호·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 노승만 기자

## “학부모가 똥 기저귀로 얼굴 때려” 피해 교사 경찰에 고소

세종시 한 어린이집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똥 기저귀로 얼굴을 맞았으며 가해 학부모를 상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13일 세종시 한 어린이집 관계자 등에 따르면 해당 어린이집 교사 A씨는 학부모 B씨가 자신의 어린 자녀가 똥 기저귀를 종이 봉지에서 꺼내 자신의 얼굴에 던졌으며 세종남부경찰서에 고소했다.

교사 A씨는 지난 10일 오후 4시께 어린 자녀 치료차 병원에 있던 학부모 B씨를 찾아 최근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B씨의 큰 자녀 상처 문제에 대해 사과하려다 변을 당했다. 당시 화장실 밖에서 ‘똥’하는 소리를 듣고 현장을 확인한 어린이집 원장이 촬영한 사진을 보면 A씨 얼굴 한 뺨이 똥 기저귀에 맞아 똥이 묻어 있는 장면이 나타난다고 어린이집 관계자는 설명했다.

교사 A씨는 똥 기저귀로 얼굴을 맞은 뒤 병원으로 이송돼 진료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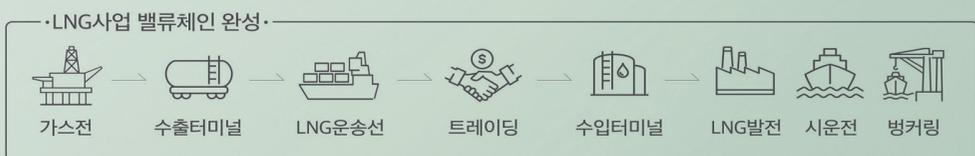
이 사건과 관련해 A씨 남편은 전남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어린이집 교사의 보호에 관한 청원’이란 제목의 글을 올리며 어린이집 교사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화를 요구했다.

남편은 청원에서 “어린이집 교사들도 방어할 수 있는 방책을 제도화해 달라”고 촉구했다. / 이지현 기자



# 친환경 에너지 전문기업 종합사업회사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인터내셔널이 포스코에너지와 하나가 되어 더 밝고 더 따스한 미래를 열어갑니다



# ‘철도노조 파업 예고’ 코레일 “국민 불편 최소화 총력”

## 14~18일 KTX·수도권 전철 중심 운행...비상수송대책 마련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14일 오전 9시부터 18일 오전 9시까지 나흘간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열차 안전 운행과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비상수송체제에 돌입했다.

13일 코레일에 따르면 코레일은 철도 파업에 대비한 24시간 비상대책본부를 운영하고, 가용 자원을 모두 동원해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하는 내용의 파업 대응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이용객이 많은 출퇴근 시간 수도권 전철과 장거리 위주 고속철도(KTX)에는 운전 경력이 있는 내부 직원과 군인 등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을 우선 투입해 열차 운행 횟수를 최대한 확보할 예정이다.

코레일은 파업 예고 기간 수도권 전철의 경우 평시 대비 75%(출근 시간대 90%



철도노조 파업 D-1

이상 운행, 14일 출근 시간대는 98%), KTX는 68%, 일반열차 새마을호는 58%, 무궁화호는 63% 수준의 평시 대비 운행 횟수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화물열차는 코레일 내부 대체 기관사를 투입해 평시 대비 27%를 유지하고, 수

출입 화물과 산업 필수품 등 긴급 화물 위주로 수송에 나설 방침이다. 파업 시 운용 인력은 필수 유지 인력 9천795명과 대체 인력 4천962명 등 총 1만4천757명으로 평시 인력의 61.2% 수준이다.

대체인력은 열차 운행 경험과 비상시

대처 능력을 갖춘 경력자로 운용하고, 충분한 실무 수습 교육을 마치고 철도안전법·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법정 교육을 수료한 인력이 투입된다.

코레일은 열차 이용객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모바일 앱 코레일톡과 홈페이지(www.letskorail.com), 역 안내방송, 여객 안내시스템(TIDS), 차내 영상장치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파업 기간 열차 이용에 대해 지속해 안내할 계획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파업 예고 기간에 수도권 전철은 출근 시간대 평시 대비 90% 이상 운행에 유지해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지만, 열차 지연 등이 우려되므로 사전에 확인해 달라”며 “바쁘신 고객은 버스나 항공 등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민정욱 기자



이재명, 단식현장 당 대표실로 이동

## 이재명 단식장소 당대표실로 이동 “단식 이어가겠다 의지 결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3일 단식 장소를 국회 본청 앞 천막에서 본청 안 당 대표실로 옮기기로 했다.

이날로 단식 14일째에 접어들면서 이 대표 몸 상태가 악화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9일과 12일 두 차례에 걸쳐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는 등 스트레스까지 가중돼 몸이 급격히 안 좋아졌다는 게 민주당 설명이다.

이 때문에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도 불참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회의에서 “(이 대표가) 검찰 조사를 두 번 받았는데, 겉으로는 건강한 척하지만,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라며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든 상태”라고 전했다.

이어 “오늘부터는 단식을 국회 당 대표실에서 하게 된다”며 “국민 여러분이 이 대표를 직접 눈으로 보고 응원하시는 데 불편한 것 같지만 계속해서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라고 했다. /곽정수 기자

이 대표 단식이 장기화하면서 당내에서는 단식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당내 최대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와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 당내 김근태계 모임인 민평련(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 소속 의원들은 이날 잇달아 이 대표를 찾아 단식 중단을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인 정부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노영민 전 의원과 양승조 전 충남지사, 허태정 전 대전시장, 이춘희 전 세종시장 등도 오후에 이 대표의 단식현장을 방문해 단식 중단을 요청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 대표는 현 상황에서 단식을 중단할 의지가 없다고 민주당은 전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회견과 만나 “대표실로 단식장을 옮긴 데는 단식을 더 이어가겠다는 이 대표의 결연한 의지가 담겼다”고 설명했다. /곽정수 기자

## 법무차관, 부산저축은행 수사팀 130명 “무마 어려웠을 것”

이노공 법무부 차관은 13일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던 윤석열 대통령이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주장에 대해 당시 수사 상황 상 어려웠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초대형 금융 비리 사건으로 현직 대통령의 친형까지 구속됐는데 이 사건을 윤석열 당시 대검찰청 중수2과장이 퇴직한 선배 부탁을 받고 덮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차관은 “당시 수사팀이 최대 130명 정도 있었다고 알고 있다”며 “상당히 인원도 많았고, 그 사건을 여론이 주시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사항(수사 무마)은 어려웠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차관은 “파악하기로는 2011년 당시 중수부에서는 이 사안(조우형 씨)과 관련해서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

고 있고,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당시 김오수 검찰총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다시 한번 해보겠다고 말한 걸로 알고 있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확인되지 않은 걸로 파악된다”며 “2015년에 금감원, 예보에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우형 씨의 문제가 불거졌고 검찰서 수사한 걸로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의 허위 인허가 사건에 대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의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이 부분 수사에 있어서 중대성과 엄중함을 잘 알고 있다”며 “검찰서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답변은 아꼈다.

당시 김오수 검찰총장 등 검찰 지휘라인이 윤 대통령의 수사 무마 의혹을 제기한 보도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오보 대응이나 그런 부분까지 해서 특별수사팀에서 공정하고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 차관은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대신 공작 사건’이라는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 말에 “선거 직전에 조직적으로 허위 사실이나 조작된 뉴스를 유포해 대선 결과를 바꿔보려는 시도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라면 어디서든지 반헌법적 중대한 범죄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서종익 기자

## ‘해병대 수색’ 생존병사 어머니 해병1사단장 공수처 고발 사고 뒤 첫 통화서 아들이 “내가 ○○이를 못 잡았다”며 눈물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해병대 실종자 수색 사고 생존자 가족의 임성근 해병1사단장 고발 기자회견’에서 피해자 어머니가 발원 도중 눈물을 보이고 있다.

경북 예천군 내성전에서 실종자 수색 중 숨진 해병대 채도 상병과 함께 물에 휩쓸렸다가 구조된 A 병장의 어머니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13일 고발한다고 밝혔다.

A 병장 어머니는 이날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휘관을 믿지 못하는 군이 대한민국을 바로 지킬 수는 없을 것”이라며 업무상과실치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날

오후 고발장을 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 사단장이 우리 아들들에게 사과할 시점은 지나도 한참 지났다”고 비판했다.

고발대리인 강석민 변호사는 “임수 명령을 내린 임 사단장이 과실이 있고 임무 수행으로 A 병장의 건강권이 침해돼 직권남용죄도 성립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A 병장은 7월19일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중 물에 빠진 병사를 구하려다가

채 상병과 함께 물에 빠져 50m 가량 떠내려가다가 구조됐다. 현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 중이다.

A 병장의 어머니는 사고 이후 첫 통화에서 아들이 “엄마, 내가 ○○(채 상병)를 못 잡았다”고 말하며 울었다고 전했다.

또 사고가 난 지 16일 만에 아들을 처음 만났다면서 “아들은 (휴가로) 집에 와 하루도 편하게 잠을 자지 못했다. 땀을 흘리면서 잤고 어느 날은 울면서 깨는 모습도 봤다”고 말했다.

군인권센터는 임 사단장이 사고 발생 이후 A 병장 등 물에 휩쓸렸던 병사들을 찾아온 적이 없으며 생존 장병을 위한 트라우마 치료는 집체교육 형태의 트라우마 교육이 전부였다고 주장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달 24일 경북 경찰청에 대대장 2명(중령)에 대해서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이첩했다. 해병대 수사에서 혐의자에 포함된 임 사단장, 여단장, 중대장, 중사급 간부는 혐의를 빼고 사실관계만 적시해 경찰에 넘겼다. /임희찬 기자

## 대전 사망교사 ‘학폭 가해자’로 몰려 학폭위 신고도 당해

악성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40대 교사 A씨는 아동학대로 고소되기 전 ‘학폭 가해자’로 몰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신고까지 당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학부모 B씨는 지난 2019년 12월 2일 “교사 A씨가 아동학대를 했다”며 학교폭력 신고를 했다.

B씨는 A교사가 친구들 앞에서 자신의 아이를 혼내는 등의 행위가 아동학대라고 주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학교 측은 같은 달 12일 학폭위를 열었다. 학폭위는 B씨 자녀에게는 심리상담 조치를 내렸지만, A 교사에 대해서는 ‘해당 없음’ 결정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학폭위는 학생 사이에 발생하는 폭력 등에 대해 처분을 내리

지만, 성인인 교사는 이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시 B씨는 A교사가 학폭위 처분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신고를 강행하면서 분리 조치 등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씨는 다시 A씨의 행동을 문제 삼아 결국 경찰에 신고까지 했고 A 교사는 10개월간의 수사기관 조사 끝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A씨 남편은 “아내가 학부모들로부터 고통을 받았지만, 교사로서 이들을 신고하는 게 옳지 않다고 생각했다”며 “저 역시 이를 지켜보면서도 지금까지 속앓이만 해왔다”고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남유정 기자

금융의 모든 순간 NH농협금융

매주 전화로 꼭 만나 친구가 있습니다  
식은 거르지 않으니 행여나 적적하지는 않나  
혹시라도 이상한 전화를 받을까 하나부터 열까지 물어드립니다  
나를 한결같이 챙겨주는 고마운 친구가 있습니다

나의 은행 이야기 농촌 독거 어르신 말벗서비스

World EXPO 2030 |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BUSAN, KOREA | NH농협은행이 응원합니다

NH농협은행

# 이재명 “국방장관 교체는 꼬리자르기…특검으로 철저히 진상규명”

## “탄핵 당론 정하러 하자 사의 표명…법적·도의적 책임 못 면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3일 해병대 채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 “특검(특별검사)법이 발의된 만큼 민주당은 관련자들에게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반드시 진실을 밝혀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채 상병 순직, 번번이 국민 생명을 지키지 못한 정부가 책임은커녕 진실을 은폐하려고 하니

온 국민이 분노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당론으로 정하러 하자 이종섭 장관이 곧바로 사의를 표명했다”며 “그간 장관을 해임하라는 국민과 야당의 요구를 묵살해온 대통령은 이재야 수용할 모양”이라고 했다.

이어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게 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고 질

책했다는 박 대령의 진술서는, 이태원 참사 당시 ‘엄연히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사람에게 딱딱 물어가지, 막연하게 다 책임지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던 윤석열 대통령의 말을 그대로 떠오르게 한다”고 지적했다.

또 “군 사망사건 유족들은 ‘이런 사건을 국가가 책임지지 않는다면 엄마들은 더 이상 병역의 의무를 따르게 키울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며 “입대할 지 4개월 만에

자가운 주검이 되어버린 ‘채 상병의 역할을 한 죽음’ 앞에서 어느 부모가 대한민국 군대에 자식을 보낸단 말인가”라고 되물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국방부 장관과 안보리안 교체로 ‘꼬리 자르기’에만 열중”이라며 “진실을 밝혀내는데 성의는 없다. 아무리 감추려 한들 법적, 도의적 책임을 결코 면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송원기 기자



1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왼쪽)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대화하고 있다.

## 감사원장 “전현희 보고서 공개 관련 내부조사, 국감 전 결론”

최재해 감사원장은 13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 결과보고서 공개 과정과 관련, 감사원 내부에서 진행 중인 자체 조사를 다음 달 국정감사 전에 끝내겠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조사 결론이 언제 나오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 질문에 “곧 나올 것 같다. 최소한 국감 전에는 위원님들이 보실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감사원은 지난 6월 1일 감사위원회 회의에서 전 전 위원장 감사 결과를 확정하고, 8일 뒤인 9일 최종 보고서를 언론에 공개했다.

최 원장은 지난 6월 법사위 회의에 출석해 이 보고서 내용이 중간에 수정된 경위를 조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 원장은 당시 감사위원회 회의 이후 자신을 제외한 감사위원 6명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일부 표현 수정뿐 아니라 내용 삭제가 이뤄졌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최 원장은 이날 “조사 태스크포스(TF)에 최달영 제1사무차장(당시 기획조정실장)이 포함돼 있느냐”는 김 의원 질문에 “처음에는 들어가 있었지만, 법사위 등에서 문제 제기가 있어 현재는 제외됐다”고 답했다.

최 사무차장은 당시 감사 결과에 지속해서 문제를 제기했던 주심 조은석 감사위원이 전산상 ‘열람’ 클릭을 하지 않자, 클릭 없이도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임시 조치를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조치에 따라 보고서는 열람 단계를 넘어갔고, 유 사무총장이 ‘결재 완료’ 처리하면서 언론에 공개됐다.

최 원장은 당시 감사위원회 회의 이후 / 문희철 기자

## 美상무부 장관 내주 방한…北러 무기거래·對中수출통제 논의 그레이브스 “對러 수출 통제 우회한 러시아의 기술·물자 확보 저지해야”

오는 13일로 예상되는 북러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대 러시아 무기 및 물자 지원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가 내주 한국을 방문해 대응을 논의한다.

돈 그레이브스 미국 상무부 부장관은 12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코트라 주최로 열린 한미통상협력 포럼에서 기조 연설을 하면서 자신이 다음 주 한국과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레이브스 부장관은 방한 중 ‘수출 통제’를 위한 한미 공조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며 “첫째로 무엇보다 우리는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불법적인 전쟁을 수행하는 데 쓰일 기술과 물자를 얻기 위한 러시아의 수출통제 우회 능력을 계속

저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레이브스 부장관은 이어 “이는 한미 양국의 우선순위 현안으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르면 13일 러시아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회담을 갖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수행에 쓸 다량·다종의 탄약과 러시아 방위산업에 사용될 원자재 등을 북한이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 합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 만큼 미국이 대러 제재 차원에서 러시아로의 수출을 막고 있는 이중용도 품목(민간용으로 개발했으나 군사용으로 쓰일 수 있는 품목) 등을 북한이 제공하려 할 경우 한미간 공동 대응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13일로 예상되는 북러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대 러시아 무기 및 물자 지원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가 내주 한국을 방문해 대응을 논의한다.

돈 그레이브스 미국 상무부 부장관은 12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코트라 주최로 열린 한미통상협력 포럼에서 기조 연설을 하면서 자신이 다음 주 한국과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레이브스 부장관은 방한 중 ‘수출 통제’를 위한 한미 공조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며 “첫째로 무엇보다 우리는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불법적인 전쟁을 수행하는 데 쓰일 기술과 물자를 얻기 위한 러시아의 수출통제 우회 능력을 계속



그레이브스 미 상무부 부장관

저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레이브스 부장관은 이어 “이는 한미 양국의 우선순위 현안으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르면 13일 러시아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회담을 갖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수행에 쓸 다량·다종의 탄약과 러시아 방위산업에 사용될 원자재 등을 북한이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 합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 최민혁 기자

## 與 “또 이재명 방탄하려는 野…불체포특권 포기 약속 내팽개쳐”

### “단식 동정론? 개팔들 사이에서만 일어나…단식을 방탄에 이용”

국민의힘은 13일 더불어민주당이 또 한 번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을 부결해 ‘방탄’하려 한다며 비난을 쏟아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전날) 이 대표가 검찰 조사를 받기 직전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는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 결의대회’나 다음없었다”고 주장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법무부 장관까지 지난 박병계 의원은 ‘이 대표를 저들의 아가리에 내줄 수 없다’는 귀를 의심케 하는 발언을 하면서 앞장섰고, 친명(친이재명)계 의원을 중심으로 동정론에 기대어 체포동의안 부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에 공언한 불체포특권 포기는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돌고 돌아 또다시 ‘방탄대모’를 갖추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피해자 코스프레에

증거 운운하며 아무리 선동한들 ‘불법 대복송금’ 사건의 피의자라는 단 하나의 진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장예찬 청년최고위원은 BBS 라디오에서 “이 대표가 아무리 단식을 하면서 당내에 동정 여론을 불러일으켜도 진실의 순간, 구속수감의 순간은 점점 더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다.

장 최고위원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표 지위를 이용해 자당 최고위원이나 국회의원을 동원해 사법방해를 시도하는 여러 정황이 뚜렷하다”며 “이런 점을 미뤄 판단하면 구속수감된 상태에서 재판받는 게 마땅하다고 재판부가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주당 내 ‘동정론’에 대해서는 “그 단식 동정론은 국민들 사이에선 일어나지 않고 개팔들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동정론”이라며 “국민적 반향이 크지 않은 이유는 처음부터 대의명분을 위한 단식이 아니라 절대로 구속되기 싫다는, 체포동

의안 부결을 바라는 단식이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여당 지도부가 이 대표 단식을 만류해야 한다’는 일각의 의견에 대해 “단식을 방탄에 이용하고 있는데 그 방탄에 여당이 들러리를 서면서 사법절차 방해에 힘을 실어줄 수는 없는 부분”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용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 가능성에 대해 “100%”라고 단언하면서 “우리나라에 헌법이 있고 법이 있는데 법 위에 민주당법이 있는 거냐, 이재명법이 있는 거냐”고 비난했다.

김병욱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민주당은 이재명과 함께 죽을 결심을 할 것인지, 민주당이 살기 위해 이재명과 헤어질 결심을 할 것인지 걱정해야 할 때가 임박했다”며 “이 대표가 민주당을 계속 점수한다면 국민이 민주당을 모른 척할 날이 곧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 송유영 기자

## 유병호 “백지신탁 불복” 항소 안 할 것…배우자와 상의했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13일 배우자 소유 주식 백지신탁 결정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 “항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유 사무총장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항소 여부를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어 “법원의 일차적인 판단이긴 하나 존중할 생각”이라며 “아내와 상의했다”고 덧붙였다.

유 사무총장은 “소송을 불필요하게 했던 것 아닌가”라는 박 의원의 지적에는 “제도상 흠결이 보였다”고 소송 제기 이유를 설명했다.

유 사무총장은 배우자 소유의 주식을 백지신탁하라는 주식백

지신탁심사위원회 결정에 대해 “직무 관련성 인정 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고,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전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한편, 최재해 감사원장은 직무 관련성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있는 금융상품 거래 행위를 금지하는 ‘금융투자상품 보유 및 거래 등에 관한 지침’의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금융 담당 직원의 배우자나 직계 비속도 관련 주식을 가졌는지 판단하는 식으로 지침이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다만 “현재 제도 금융 담당 직원은 주식 거래 내용을 신고하도록 운영하고 있다”며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까지 확대하는 부분은 조금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 정수경 기자

World EXPO 2030 BUSAN, KOREA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LG가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미래같이 뉴스

### 바다가 좋아하는 LG의 클린테크

내일의 바다는 오늘보다 더 맑고 투명하도록 LG의 클린테크는 깨끗한 바다를 만들어갑니다

바다를 살리기 위한 플라스틱의 변화

깨끗한 바다를 지키기 위한 기업의 노력

바다에 탄소 흡수 해초 심는

깨끗한 바닷물, 돌아보셨나요?

다 같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는 미래까지 만들기, LG가 함께 하겠습니다.

# 與, '대장동 허위 인터뷰' 방송한 김어준 등 3명 고발키로

## 주진우·최경영까지... "허위 인터뷰를 사실처럼 전제하고 방송해 尹 명예 훼손"



여당,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 관련자 고발

국민의힘은 '김만배-신학림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해 전현직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 김어준·주진우·최경영 씨 등 3명을 경찰에 고발키로 했다. 당 미디어정책조정특별위원회(위원장 윤두현)와 가짜뉴스·과담방지특별위원회(위원장 김장겸)는 이날 국회 소동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들을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14일 서울경찰청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두현 의원은 "이들 3명은 공공재인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김만배-신학림의 허위 인터뷰 내용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전제하고, 허위 사실을 그대로 방송해 당 소속 대선후보(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크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최경영의 최강시사' 등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뉴스토크의 '허위 인터뷰' 보도를 사실인 것처럼 과도하게 표현한 정도가 유독 심각했다고 특위는 설명했다.

윤 의원은 "향후 추가로 살펴보고 TV 시사 제작프로그램도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송진영 기자



흥기 들고 호텔 로비 배회

## 흥기 들고 호텔직원 협박한 50대 투숙객... 불구속 송치

호텔 프론트 직원을 흥기로 협박한 50대 투숙객이 경찰로 넘겨졌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유성구 봉명동의 한 호텔에서 직원을 흥기로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50대 A씨를 경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일 이 호텔에 투숙 중이던 A씨는 같은 날 오후 10시 50분께 객실 전화로 호텔 로비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왜 호텔에서 나가라고 하느냐,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고, 인근 편의점에서 흥기를 사 들고 들어와 호텔 로비에 있는 직원들에게 "한명만 내 방으로 따라와라, 죽이겠다"고 재차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신고 접수 10여분 만에 A씨를 객실 안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호텔 직원들은 A씨에게 "나가 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특정한 직업과 주소지가 없고, 정신질환 병력이 있는 것을 보고 가족을 수소문한 뒤 정신병원에 응급입원 조치했다. / 조규현 기자

## 학교 침입해 교사 흥기로 찌른 20대 21일 재판 시작



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가 정신질환에 따른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이상 동기에 의한 계획범죄를 범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정신과에서 통원 치료를 받았으며, 의사에게 입원 치료를 권유받은 뒤 이를 거부하고 치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 침입해 교사를 흥기로 찌른 20대 남성에 대한 재판이 다음 주부터 시작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7)씨의 첫 공판 준비기일을 오는 21일로 잡았다.

A씨는 지난 8월 4일 오전 10시께 대전 대덕구 한 고등학교에 침입해 교사 B(49)씨의 얼굴과 옆구리 등을 흥기로 10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학교 정문을 통과해 교내로 들어온 A씨는 2층 교무실로 올라가 B씨를 기다리다 교무실 안으로 들어가 흥기를 휘둘렀고, 범행 직후 달아났다 3시간여만에 붙잡혔다.

당초 A씨는 B씨를 비롯한 다수의 교사와 동급생으로부터 집단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조사 결과 A씨 주장은 사

를 권유받은 뒤 이를 거부하고 치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A씨가 방학식 직전인 지난 7월 14일에도 학교를 찾아가다가 B씨를 만나지 못하고 돌아온 뒤 다시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점, 인터넷에 비공개로 설정돼 있던 B씨 재직 학교를 알아내기 위해 학교에 전화하고 통화 내역을 은폐하려 한 점 등을 토대로 계획적·지능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범행 수단과 방법, 상황의 의미 등을 알고 있었고 이미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며 "A씨가 알고 있는 정신질환은 범행 동기로 작용했을 뿐 범죄 행위 자체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워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사유가 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 황순길 기자

## '불출석 패소' 권경애, 유족과 소송 조정기일에야 변호사 선임



지난 6월 징계위원회 시작 기다리는 피해자 어머니

학교폭력 소송에 불출석해 패소를 초래한 권경애에 변호사를 상대로 피해자 유족 측이 제기한 소송의 첫 조정 기일이 진행 없이 끝났다. 12일 서울중앙지법은 숨진 박모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가 권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조정 기일을 열었지만 별다른 논의 없이 이날 17일 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권 변호사는 출석하지 않고 대리인을 통해 참여했다. 그는 조정기일이 이날에서야 소송대리인 선임계를 재판부에 냈다.

딸의 명찰을 가슴에 달고 법원에 출석한 이씨는 기일이 끝난 후 취재진에게 "권 변호사 측이 준비한 게 하나도 없었다"면서 "조정 조건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고 말했다. 권 변호사의 대리인은 "따로 할 말이 없다"라고만 밝혔다.

권 변호사는 2016년 이씨가 학교폭력 가해자들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을 대리했다. 이씨는 1심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항소심에선 권 변호사가 변론 기일에 세 차례 불출석해 작년 11월 패했다.

권 변호사가 패소 사실을 알리지 않아 유족 측이 상고하지 못한 채 판결이 확정됐다. 그는 이 기간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치 관련 글을 꾸준히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사태가 언론 보도로 알려지자 이씨는 올해 4월 권 변호사와 소송 범무법인, 같은 법인 변호사 2명을 상대로 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7월 이 소송을 조정해 회부했다.

권 변호사는 이 일로 지난 6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정직 1년의 징계를 받았다. / 강성민 기자

## 성범죄 신상등록대상자 10만명 넘어 "소재 불명은 168명"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신상정보를 경찰서에 등록해야 하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10만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는 2021년 9만1천136명에서 지난해 10만1천71명으로 증가했다. 올해 7월까지 보면 10만6천71명에 달한다.

등록 대상자는 2018년 5만9천407명, 2019년 7만1명, 2020년 8만9천39명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 7월 기준 등록 대상자 중 소재 파악이 안 되는 성범죄자는 총 168명에 달했다.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위반해 형사입건된 대상자도 지난해 5천458명으로, 2021년 4천640명보다 늘어났다.

등록 대상자는 신상정보를 제출한 다음 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경찰서에서 사진을 촬영해야 하지만, 이를 위반해 형사입건된 대상자는 2021년 159명에서 지난해 365명으로 증가했다.

전 의원은 "등록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는 2차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소재 불명자를 조속히 검거하고 대상자를 더욱 꼼꼼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 김성규 기자




# 지금 사고 나눠내자!

온라인 최저가보다 최대 72% 저렴하게!



월 6,900원



월 13,500원



월 4,900원



월 900원

※ 최저가 비교기준 : 22년 3월 N사 쇼핑 기준, 삼성TV(KU50UA7050FXKR), KB계류카드 전월 30만원 사용에 따른 할인 적용 시 ※ 월 렌탈료는 품목 및 할부 기간에 따라 상의

새로운 가전 구매 트렌드

LG헬로비전 헬로렌탈

상담문의 1855-1082

# 네타냐후 9개월만에 겨우 만나주는 바이든...“백악관에선 안돼”

## “사법부 무력화 입법 등 우려로 유엔총회 기간 회담하기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음 주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 기간에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만나기로 했다고 미국 매체 약시오스가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네타냐후 총리가 지난해 연말 재집권한 뒤 약 9개월 만에 이뤄지는 첫 대면 회동으로, 양국의 긴밀한 동맹 관계를 감안할 때 양국 정상회담이 늦어진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약시오스는 짚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만나길 원했던 네타냐후 총리로서 유엔에서의 회동은 다소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재집권 후 백악관의 초청을 받지 못한 네타냐후 총리는 바이든 대통령과의 회동이 이뤄지도록 워싱턴 주재 자국 대사를 압박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악관 참모진 사이에서도 회담 장소를 백악관으로 할지, 뉴욕으로 할지를 놓고 의견이 엇갈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약시오스는 정치적 측면, 외교 정책적 고려 사항 등을 놓고 오랜 내부 논의 끝에 바이든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를 백악관이 아닌 뉴욕에서 만나기로 결정했다고 미국 정부 당국자 3명을 인용해 전했다.



2016년 부통령 시절 이스라엘을 방문한 바이든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

회동 날짜는 오는 22일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은 이 같은 보도에 대해 논평하지 않았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5일 네타냐후 총리와 전화 통화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일정 때문에 백악관 회동이 어렵게 됐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물론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 밖에서 네타냐후 총리를 보러 하는 것은 단순히 일정 문제 때문만은 아니다.

사법부 무력화 입법 등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초강경 우파 정부의 논란 투성이 정책 등이 백악관의 이 같은 결정에 영

향을 미쳤다고 미국 정부 당국자들은 전했다.

한 당국자에 따르면 백악관 집무실 회동에 반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일부 참모진은 집무실 회동이 사법 정비 등 네타냐후 정부의 정책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과 관련해 잘못된 신호를 보낼 것을 우려했다.

이스라엘인들과 미국 유대인들이 백악관 회동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일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고위 당국자는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 집무실에서 네타냐후 총리와 만나는 것은 민주당 내에서 대통령에

게 정치적 손해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 백악관 참모진 사이에 많았다고 전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사법부 무력화 입법, 요르단강 서안 유대인 정착촌 확장 등을 강행해 바이든 행정부와 갈등을 빚었다. 이스라엘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촉발한 사법부 무력화 입법에 대해선 미국 내 유대인들은 물론 바이든 행정부와 의회 민주당 당원들도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이 아닌 뉴욕에서 네타냐후 총리와 만나기로 한 것은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외교관계 정상화 등 현안을 논의하면서도 양국 관계가 평소와 다를 바 없다는 신호는 주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절묘한 타협안이라는 게 미국 당국자들의 전언이다.

그 대신 백악관은 네타냐후 총리를 올해 말에는 워싱턴에 초청할 것이라는 입장을 네타냐후 총리 측에 전달했다고 당국자들이 전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 고위 당국자는 “백악관이 앞으로 몇 주간 이스라엘의 사법 정비 입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상황을 지켜보길 원한다”고 말했다.

/ 박정훈 기자



인도네시아의 크리스마스

## 인도네시아 정부, 이슬람식 ‘이사 알마시’→‘예수’로 표기키로

인도네시아 정부가 기독교의 메시아인 예수에 대한 명칭을 이슬람식 표현인 ‘이사 알 마시’(Isa Al-Masih)에서 기독교인들이 사용하는 ‘예수 그리스도’(예수 그리스도·Yesus Kristus)로 바꾸기로 했다.

13일(현지시간) 일간 콤파스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인적자원개발·문화 조정부는 내년도 공휴일을 확정하면서 기독교 명절인 성금요일과 예수 승천일의 이름을 교체하기로 했다.

성금요일은 예수가 십자가에 달린 날이다. 인도네시아는 이날을 ‘와팻나 이사 알 마시’(Wafatnya Isa Al-Masih)라 불렀다. 이사 알 마시의 죽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내년부터 이를 ‘와팻나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기로 했다.

또 부활한 예수가 다시 천국으로 돌아간 승천일도 ‘크나이칸 이사 알 마시’(Kenaikan Isa Al-Masih·이사 알 마시

승천)에서 ‘크나이칸 예수스 크리스투스’로 바꾸기로 했다.

이슬람 문화가 강한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금까지 예수의 호칭을 이슬람 경전 ‘쿠란’에서 예수를 부르는 이사 알 마시로 표기해 왔다. 이사는 예수를 지칭하고 알 마시는 선지자라는 의미다.

하지만 기독교계는 이사 알 마시 대신 자신들이 부르는 예수스 크리스투스로 바꿔 달라고 주장해 왔고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를 받아들여 공휴일 명칭부터 바꾸기로 했다.

인도네시아는 전 국민의 약 87%가 무슬림이지만 이슬람교를 국교로 지정하지는 않고 있으며 개신교와 천주교, 불교, 힌두교 등 다른 종교도 인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각종 이슬람교 명절 외에도 다른 종교들의 기념일들도 공휴일로 지정한다.

/ 권정석 기자

## 중국 경제 비판론에...글로벌 자금, 신흥시장→미국 급속 이동

### 펀드매니저 신흥시장 준비중확대 포지션 전달 34%→이달 9%



중국 경제에 대한 비판론의 영향으로 글로벌 투자자금이 신흥시장에서 미국으로 급속도로 옮겨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가 최근 총 6천160억 달러(약 817조 원)를 굴리는 글로벌 펀드 매니저 222명을 대상으로 월간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신흥시장에 대한

순 비중확대(net overweight) 포지션은 지난달 34%에서 이달 9%로 급감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반면에 미국 주식에 대한 투자 비중은 29%포인트 증가해 7% 순 비중확대를 나

타냈다. 미국 주식에 대한 비중확대는 작년 8월 이후 처음이다.

S&P 500지수가 올해 들어 17% 상승하는 등 미국 증시는 호조를 보였지만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신흥시장 지수는 겨우 2% 올랐다. 블룸버그는 설문조사 자료를 토대로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신흥시장에서 미국으로 급속한 자금 이동을 촉발했다고 전했다.

특히 BofA는 ‘중국을 피하라’라는 테마가 투자자들 사이에 가장 큰 신념 중 하나가 됐다고 짚었다.

가까운 미래에 중국의 강한 경제 성장을 예상한 투자자는 한 명도 없었다. 지난 2월 78%나 고성장을 점쳤는데, 급격한 반전이다. 자국 경제 신뢰 회복을 위한 중

국 정부의 최근 노력이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중국 부동산 문제가 세계 신용 이슈 가운데 가장 큰 골칫거리로 떠오른 점에서도 확인된다.

/ 오창민 기자

## 홍수로 최소 5천명 숨진 리비아...원흉은 ‘기후변화·정치혼란’

### 2011년 아랍의 봄 혁명 후 사실상 무정부 상태 이어져

북아프리카 국가 리비아를 덮친 열대성 폭풍 ‘다니엘’이 예상 외로 휩쓸고 지나간 피해는 남긴 배경에는 기후변화와 정치 혼란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리비아 당국은 12일(현지시간) 기준으로 동북부 항구도시 데르나에서만 최소 5천300명이 숨지고 1만명 이상의 실종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지중해에서는 한해 두세차례씩 ‘메디케인’(medicane)으로 불리는 열대성 저기압이 발생하지만 이처럼 대규모 인명피해가 동반된 건 이례적이다.

AFP 통신과 영국 일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기후 변화가 참사를 초래한 원인 중 하나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열대성 저기압은 수온이 따뜻할수록 더 큰 위력을 갖는데, 지구온난화 등의 영향으로 해수면 온도가 과거보다 훨씬 높아졌다는 이유에서다. 바다는 산염화 이후 인간 활동으로 과잉 배출된 열의 90%가량을 흡수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정부의 기후변화 관련 회의에 참석한 과학자들은 지중해 동부와 대서양의 해수면 온도가 평소보다 섭씨 2~3도나 높아지면서 “강수량이 더욱 커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앞서 유럽연합(EU) 기후변화 감시기구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서비스’(C3S)는 올해가 인류 역사상 가장 더운 해가 될 것이라고 내다보기도 했다.

이런 요소가 맞물리면서 이달 4일 지중해에서 형성된 다니엘

은 리비아와 불가리아, 그리스, 튀르키예 등 주변 각국에 광범위한 피해를 남겼다.

그중에서도 리비아의 피해가 유독 컸던 데는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이란 ‘인재’(人災)가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리비아는 지난 2011년 ‘아랍의 봄’ 혁명 여파로 무아마르 카다피 정권이 무너지고 동부부를 장악한 리비아 국민군(LNA)과 서부의 통합정부가 대립하는 무정부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그런 까닭에 노후한 기반시설이 제대로 관리·보수되지 못했고, 재난 예측과 경보, 대피 체계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실제, 최대 피해 지역인 데르나에선 시 외곽 댐 두 곳이 연달아 무너지면서 대홍수가 발생, 주민 수천명이 흩탕물에 휘말린 채 바다로 떠내려가는 참사가 벌어졌다.

현지에선 문제의 댐들을 보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심지어 작년에는 ‘큰 홍수가 발생할 경우 댐 두 곳 중 하나가 터지면서 데르나 주민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의 논문이 한 학술지에 실리기도 했다고 한다.

영국 오픈대학의 환경시스템공학자인 레슬리 메이본은 기후 변화로 극단적 기상현상이 잦아지고 강해진다고 해도 이에 가장 취약한 이들은 사회·정치·경제적 요인에 의해 정해진다고 강조했다.

/ 정윤주 기자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SKD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다시온 자영업자의 미래를 위한 행동. World Expo 2030 BUSAN의 시작

WAVE

### T 우주에서 ‘유튜브 프리미엄’ 본다

SK텔레콤 ‘가입만 해도 본전 뽑는 혜택, 가성비 만족도 높은 우주패스 life 출시’

우주패스 life·all에서 유튜브 프리미엄과 제휴사 혜택까지

유튜브 프리미엄, 전 세계 8만명 이상의 유료 이용, T 우주 가입자 확대 계기점

유튜브 프리미엄은 월 9,900원에 유튜브 프리미엄과 편의점·커피 최대 30% 할인 제공

유튜브 프리미엄, 전 세계 8만명 이상의 유료 이용, T 우주 가입자 확대 계기점

유튜브 프리미엄은 월 9,900원에 유튜브 프리미엄과 편의점·커피 최대 30% 할인 제공

유튜브 프리미엄, 전 세계 8만명 이상의 유료 이용, T 우주 가입자 확대 계기점

# 레레레렉 더줌

## '유튜브 프리미엄' 마음껏 보면서

투썸플레이스 최대 30% 할인

세븐일레븐 최대 30% 할인

이 모든 혜택이 월 9,900원 첫달 1,000원

우주패스 life

YouTube Premium A TWOSOME PLACE T-ELEVEN

SK telecom

# 정부 “후쿠시마 인근 8개 현 수산물 수입금지 예외없이 적용”

## ‘일본, 수산물 韓수출 확대 추진’ 보도에 “제안받은 바 없어”



수산물 소비 활성화 관련 발언하는 박성훈 해수부 차관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일본이 일본산 수산물의 한국 수출 확대를 추진한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일본 측으로부터 제안은 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오염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힌 데 이어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에 대한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는 변함 없이, 예외 없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앞서 한 언론은 일본무역진흥공사를 중심으로 일본이 한국으로의 수산물 수출 확대를 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박 차관은 “국민 안전과 건강에 위해가 있을 수 있는 수입수산물이 우리 바다에 들

어오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박 차관은 지난달 28일부터 실시 중인 ‘제2차 민간합동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과 관련해 현재까지 9천384개소를 점검해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 47개소를 적발했다고 말했다. 원산지 미표시가 37개소, 거짓표시가 10개소다. ‘일본산’ 원산지를 미표시한 경우는 7개소,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는 3개소였다.

박 차관은 “지자체가 최근 개별적으로 위반실적을 발표하고 있는데 2차 특별점검 결과는 체계적이고 통일된 형태로 국민께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 김석호 기자



‘이차전지 소재·부품 및 장비전’에 마련된 LS전선 부스 전경

## LS전선 ‘K-배터리 전시회’서 전기차 충전 솔루션 선보여

LS전선은 오는 15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리는 ‘이차전지 소재·부품 및 장비전’(K-BATTERY SHOW 2023)에서 전기차용 소재·부품과 충전 인프라 솔루션을 선보인다고 13일 밝혔다.

LS전선은 이번 전시회에서 전기차 충전소용 버스덕트(Busduct)인 EV웨이(EV-way)를 처음으로 공개한다.

대용량 전력 공급 시스템인 버스덕트는 초고층 빌딩과 아파트, 공장 등에서 전선을 대체해 사용돼 왔으며, LS전선이 최근 전력 사용량이 많은 충전소용으로 특화해 개발했다.

초급속 충전케이블도 전시한다. 냉각 액으로 온도 상승을 억제하는 액랭식(液冷式) 케이블로, 공랭식에 비해 굵기 무게를 절반 가까이 줄인 제품이다. 그동안 유럽 업체가 특허 등을 통해 시장을 과점하고 있어 국내에서는 수입

에 의존해 왔다.

LS전선은 국내외 완성차 업체, 배터리 제조사 등에 모터용 권선과 고전압 하네스, 알루미늄 전선 등을 공급하고 있으며, ‘전기차 충전용 하이브리드 ESS 개발’ 국책 과제에 참여하는 등 관련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급속 충전과 방전이 가능해 ‘차세대 이차전지’로 불리는 LS머트리얼즈의 울트라커패시터(UC) 등 전기차 모터와 배터리 등에 사용되는 각종 부품도 전시된다.

LS전선 관계자는 “전기차용 소재·부품과 충전 인프라 솔루션을 신성장 동력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다”며 “이번 전시회는 가온전선, LSEV코리아, LS머트리얼즈, LS알스코 등 관계사와 함께 관련 제품들을 총망라해 선보이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신재원 기자

## 50년만기 주담대 한도 줄어든다...DSR 산정 ‘최장 40년’으로 제한

### DSR 산정에 가산금리도 적용·특례보증자리론 신청 자격 강화

최근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급증하자 금융당국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만기를 최장 40년으로 제한하고 가산금리도 적용해 대출 한도 축소에 나섰다.

과잉 대출 여지가 있는 특례보증자리론에 대한 기준도 강화해 일반형 상품의 지원 대상자와 일시적 2주택자는 신청 자격에서 제외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세훈 사무처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가계

부채 현황 점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대책을 내놨다.

이날 참석자들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중심으로 5조~6조원 수준의 가계 대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하며 향후 가계 부채 증가세를 막기 위해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들은 가계부채 증가세를 주도한 은행들의 50년 만기 주담대가 DSR 규제 우회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고, 특례보증자리론은 대상 범위를 좁혀 서민·실수요층에만 집중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의 가계 대출 관리 강화를 위해 장기 주담대가 ‘상환 능력 내 대출’이라는 원칙을 훼손하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50년 만기 대출이 DSR 규제 우회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13일부터 대출 전 기간에 걸쳐 상환 능력이 입증되기 어려운 경우 DSR 산정 만기를 최대 40년으로 제한한다. 다만, 개별 차주별로 상환 능력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50년 만기 대출 등이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은행권 자체적으로도 40~50년 만기

대출 상품을 취급할 경우 과잉 대출이나 투기 수요 등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집담대출이나 다주택자, 생활 안정자금 등 가계 부채 확대 위험이 높은 부문에 취급을 주의하도록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변동금리 대출에 대해서는 향후 금리 상승 가능성을 고려해 엄격한 수준의 DSR 규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 금리를 적용하는 ‘스트레스(Stress) DSR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연 소득 5천만원인 차주가 금리 4.5%로 DSR 40%에 50년 만기로 대출할 경우 가산금리 1%포인트(p)가 적용되면 기존에 4억원이던 대출 가능액이 3억4천만원으로 줄게 된다. /한병준 기자

KB금융그룹 | **세상을 바꾸는 금융**

# 한눈을 팔자

투자의 모든 정보가 한눈에 딱!



**돈이 되는 모든 정보  
KB증권 오늘의 꼭  
투자를 똑똑  
개비증권**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5-02100호(2023.06.12~2024.06.11) \*투자자는 이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하여 당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금융투자상품은 예금보장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가 기보하지 않습니다. \*이 금융투자상품의 자산 가격 변동, 원금 변동, 신용 등급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원부 또는 잔액)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국내 주식거래 수수료 115, 해외에서 1건만 원 이상~5천원 미만 0.1275% \*2,000원/모바일 0.1975% 일률 적용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KB증권**

## 올해 배달음식 트렌드는?...배민 “탕후루·마라로제 인기”

메뉴 구성에 참고해요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맛!’



**마라로제**

주문량 증가한 메뉴



**제로**

주문량 증가한 메뉴

올해 상반기 소비자들의 관심을 끈 배달 음식 메뉴는 탕후루인 것으로 나타났다. 탕후루는 꼬치에 다양한 과일을 끼워 설탕을 문혀 먹는 중국 전통 간식이다.

13일 우아한형제들의 ‘배민트렌드2023 가을·겨울편’에 따르면 올해 7월 배달의민족 내 탕후루 검색량은 지난 1월과 비교해 47.3배 늘었다.

우아한형제들은 냉면의 경우에도 배달 검색이 순위 50위권을 벗어난 적이 없다면서 ‘사계절 인기 메뉴’라고 소개했다. 지난해 10월 불어빵 검색량이 전월 대비 354.9% 늘었다고 설명했다. 또 매년 10월 말부터 겨울까지는 ‘대방아’를 찾는 고객이 많았고 지난해 11월에는 과메기, 석화, 굴보쌈 검색량이 크게 늘었다고 전했다.

우아한형제들은 실제 주문량이 크게 증가한 메뉴로는 ‘마라로제’ 관련 음식을 꼽았다. 지난 7월 떡볶이, 찜닭 등 마라로제 메뉴 주문량은 1월 대비 6.3배 증가했다.

또 1~7월 제로 콜라, 제로 사이다 등 제로 메뉴 주문수는 작년 동기와 비교해 2.5배 늘었다.

이 밖에 우아한형제들은 오는 추석 연휴와 항저우 아시안 게임 기간 배달 음식 주문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의 경우 추석 대체휴일 주문수가 1주 전보다 28.8% 증가했고, 카타르 월드컵 기간 중 국가대표 경기가 있던 날에는 주문량이 전월 대비 37.2% 늘었다는 점을 언급했다.

/ 김경민 기자

## GS프레시몰, 물류센터 배송 접고 킥커머스 강화...수익개선 시동

GS리테일은 온라인 장비기 플랫폼 GS프레시몰의 물류센터 배송을 접고 오프라인 매장을 기반으로 한 근거리 배송에 집중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GS프레시몰은 온라인 식품 배송 시장의 경쟁이 과열됨에 따라 수익을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전환하기 위해 지난해 새벽 배송을 종료하고 당일배송 서비스만 제공해온 바 있다.

이후 엔데믹과 고객 소비 패턴 변화를 고려해 온라인 사업 전략을 다시 한번 수정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 물류센터를 통한 당일 배송은 중단하고 전국 420여개 GS더프레시 매장을 중심으로 한 근거리 배송을 강화한다.

GS리테일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우리동네마트’와 ‘요마트’ 등을 통해 주문하면 인근의 GS더프레시 매장에서 바로 배송해주는 킥커머스 서비스에 힘을 준다.

지난 7월부터는 네이버쇼핑 장비기 채널에도 입점해 1시간 내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물류센터 배송 구조를 탈피하고 매장 연계를 통해 효율성과 수익성을 높여겠다는 전략이다.



GS리테일 관계자는 “엔데믹과 국내외 경기 불안 등으로 고객 소비 패턴이 변화하면서 대부분의 온라인 사업자가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빠른 전략 변화를 택했다”며 “강력한 오프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더 나은 ‘O4O’(Online for Offline·오프라인을 위한 온라인) 가치를 실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노승훈 기자

# 오세훈 “주택공급 확대유인책 곧 발표”...민심대책 “물가억제”

## “주거로 서민고통” 가격 하향안정 추진...물가방안 “주거·교통비 총력”

오세훈 서울시장은 13일 “주택을 많이 지을수록 유리하게 하는 유인책을 마련 중이며 조만간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내년에 주택공급이 감소할 것이라 예측이 나와 대비가 필요해 구체적 대안을 만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 주거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보는데, 지난 10년간의 주택공급 압축 기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서울에서 경기도로 이사 갈 수밖에 없는 분들, 이른바 ‘나의 해방일지’ 희생자가 생겼다”고 지적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3일 “주택을 많이 지을수록 유리하게 하는 유인책을 마련 중이며 조만간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내년에 주택공급



이 감소할 것이라 예측이 나와 대비가 필요해 구체적 대안을 만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 주거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보는데, 지난 10년간의 주택공급 압축 기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서울에서 경기도로 이사 갈 수밖에 없는 분들, 이른바 ‘나의 해방일지’ 희생자가 생겼다”고 지적했다.

현재 수도권 민심에 제일 필요한 대책으로는 ‘물가 상승 억제’를 꼽았다.

오 시장은 “물가를 올리는 주범이 주거비다. 지난 10년 동안 그걸 실패했기 때문에 서민들이 모두 고통에 빠진 것”이라며 “이 문제는 지난 2년 동안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왔고 앞으로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주거비 다음으로 중요한 포선을 차지하는 교통비는 이번에 대책(기후동행카드)을 내놨고, 그다음으로 유가 인상에 생기는 부분은 근본부터 서울시가 해결할 수는 없으나 최대한 물가 인상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은 할 수 있는 한 다 하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정치 행보와 관련한 물음에 절제된 답변을 내놓았지만 여론 ‘잠룡’으로서 정치적 경쟁 구도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선 날 선 반응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14일째 단식 중인 이 대표의 단식을 어떻게 풀어야 하느냐는 질문을 받아

“본인이 풀어야죠. 누가 풀어줄 수 있나”라며 “여러 범죄 혐의를 받는 상태에서 국민이 동의할까. 지구책을 단식에서 찾은 것 아닌가 많은 국민이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시로 검찰에 들어가 수사 받는 입장인데, 그 정도면 사실은 자리(대표직)를 내려놓는 게 맞다”고 직격했다.

이어 “제1야당의 대표이고 제1야당의 노선을 이끄는 분이 평상심으로 정치해도 잘할 수 있을까 말까인데 지금 평상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다. 더군다나 단식까지 하면서”라며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최근 발표한 기후동행카드 정책을 대선용 행보로 봐도 되느냐는 질문도 나왔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그런 말씀을 하는 몇 분이 계시는데 그 정도로 반향이 크다, 시민들의 기대감이 크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겠다”고만 답했다. / 송원기 기자



### “오월 문제 해법은?”

## 5·18 특별위원회·광주시, 시민 대토론회

광주시, 광주시의회 5·18 특별위원회는 12일 오후 광주 동구 전일빌딩 245에서 ‘내일의 5·18을 상상하자’라는 주제로 시민 대토론회를 열었다.

5·18 특별위원회 이명노·채은지 의원의 진행으로 시작된 토론회는 10~30대 광주 시민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미래의 5·18에 대한 의견을 발표했다. 참여자들은 5·18 민주화운동이 직면한 현재의 문제 때문에 장래가 밝지 않다는 의견과 함께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발제자로 나선 한 시민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 왜곡이 이어지고, 정치권에서는 특정 진영의 역사로 치부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5·18의 장래가 밝다고만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5·18 민주화운동을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명노 위원장은 “5·18 특별위원회는 5·18을 통해 우리 사회가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 시민단체, 5·18 기념행사위원회, 시민 100명의 참여 신청을 받아 ‘우리가 생각하는 오월 문제’, ‘5·18 기념행사 평가 및 발전 방안’을 주제로 2차 토론회가 열린다.”

이명노 위원장은 “5·18 특별위원회는 5·18을 통해 우리 사회가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 시민단체, 5·18 기념행사위원회, 시민 100명의 참여 신청을 받아 ‘우리가 생각하는 오월 문제’, ‘5·18 기념행사 평가 및 발전 방안’을 주제로 2차 토론회가 열린다.”

다”며 “특히 미래 세대를 위해 5·18 역사 왜곡에 대응하는 방안을 배울 수 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5·18을 ‘연결고리’라고 설명한 또 다른 시민은 “역사적 사건인 5·18은 43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그 영향이 미래에 어떻게 작용할지 연구해야 5·18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13일 오후 2시에는 5·18 공명 3단체와 기념재단, 시민단체, 5·18 기념행사위원회, 시민 100명의 참여 신청을 받아 ‘우리가 생각하는 오월 문제’, ‘5·18 기념행사 평가 및 발전 방안’을 주제로 2차 토론회가 열린다.

시의회 9명으로 구성된 광주시의회 5·18 특위는 기념사업, 제도 정비, 교육 정책, 헌법 전문 수록 등 5·18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지난 7월 출범했다.

이명노 위원장은 “5·18 특별위원회는 5·18을 통해 우리 사회가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 시민단체, 5·18 기념행사위원회, 시민 100명의 참여 신청을 받아 ‘우리가 생각하는 오월 문제’, ‘5·18 기념행사 평가 및 발전 방안’을 주제로 2차 토론회가 열린다.”

## ‘오산시의회 vs 체육회’ 갈등, ‘시의회 vs 시장’ 갈등으로 번져

### 시의회 “체육회장 사퇴 전까지 정회”...시장 “시의원 대우 낮겠다”



권병규 오산시체육회장 기자회견

경기 오산시의회가 시 체육회장의 ‘의회 공개 비난’을 놓고 분회의 무기한 정회를 선언한 데 대해 이관재 시장이 “시의원 대우를 하지 않겠다”고 맞받아치면서 시의회와 체육회 간 갈등이 시의회와 시장 간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성길용 시장장은 13일 오전 열린 임시회 3차 분회의에서 “체육회장의 도를 넘은 행위에 대해 시의회는 이관재 시장의

재발 방지 약속과 체육회장 사퇴 시까지 분회의를 무기한 정회하겠다”라고 정회를 선포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5명이 모두 퇴장하자 이 시장은 분회 의장에 남아 “체육회와 시의회 간 감정으로 인해서 이번 회기를 마무리하지 않고 끝내는 것은 시의회로서 존재 가치가 없다”며 “내일부터 모든 시의원을 시의원으로 대우하지 않겠다”고 발언했다.

정회한 분회의가 속개되지 않으면 회기 중 진행돼 온 38건의 조례안 심사 결과를 포함한 임시회 안건은 이날 밤 12시를 기해 자동 폐기된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이 시장의 강경 발언과 관련해 대책을 논의 중이다.

앞서 지난 9일 권병규 오산시체육회장은 제35회 시민의날 체육대회 행사장에서 대회사 도중 “체육회 예산을 삭감한 오산시의원들을 왜 내빈으로 소개하나”, “체육회 예산을 깎은 행위는 체육인을 무시하는 처사다”, “시의원들은 선거철만 인사하고 다닌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권 회장이 언급한 ‘예산 삭감’은 의회가 이번 추경 예산안에 상정된 체육회 예산 3건 가운데 워크숍 행사 예산 1천100만원을 삭감한 것을 의미한다.

이에 시의회는 지난 11일 여야 의원 전원이 참여한 기자회견을 열고 권 회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권 회장은 이날 임시회 분회의가 열리기 30분 전인 오전 9시 30분 오산시청 1

층 로비에서 반박 기자회견을 통해 “매년 시행한 행사 예산인데 깎았다. 의원들은 공부 좀 해야 한다. 무식한 사람들이다. 예산 삭감은 폭거다”며 “사퇴는 제가 할 게 아니라 시의원들이 해야 한다”고 재차 비난했다.

성 시의장의 무기한 정회 선언은 이 같은 권 회장의 반박 기자회견 발언을 듣고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 백민우 기자

## 의정부시 “도시공사 내년 1~2월 출범 목표”

경기 의정부시는 내년 1~2월 출범을 목표로 도시공사 설립을 추진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도시공사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미 지난 7월 제정됐다.

이 조례에 따라 도시공사는 토지 개발·공급, 건설, 위락·산업단지 조성, 도로·철도 건설 등을 비롯해 기존 시설관리공단 업무를 맡게 된다.

당초 의정부시는 이달 중 도시공사를 출범할 계획이었으나 출자금과 세부 사업 등을 정하지 못하면서 시의회에 조직 변경안을 상정하지 못했다. 출자금은 200억원 이상을 염두에 뒀으나 재정 부족 등으로 계속 조정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인근 양주도시공사는 자본금 53억원, 구리도시공사는 60억원, 남양주도시공사는 50억원으로 출범했다.

의정부도시공사는 시설관리공단과 통합돼 3본부, 직원 400명 규모로 운영된다. 그러나 출범 초기 인건비 부담 등으로 3본부 체계를 갖추기 어려울 것으로 의정부시는 예상했다. / 신민경 기자

## 안산에 택시협동조합 첫 출범...100대 운행 시작



경기 안산시는 택시협동조합인 ‘희망택시협동조합’이 출범해 운영을 시작했다고 13일 밝혔다. 희망택시협동조합은 택시의 운영 관리는 조합이 맡고, 조합원들은 회비를 조합에 낸 뒤 나머지 수익은 본인이 가져가기 때문에 일한 만큼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이 최대 장점으로 꼽힌다.

안산지역에서 택시협동조합이 출범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상록운수의 운수종사자 90여명이 지난날 초 협동조합을 설립해 이달 1일부터 택시 100대로 운영을 시작했다.

현재 희망택시협동조합에는 조합원 106명이 가입돼 있다. 시는 전일 한양대 에리카캠퍼스 게스트하우스에서 희망택

시협동조합 발대식을 열어 이신택 희망택시조합 이사장과 조합원들에게 임명장 및 감사패를 전달했다.

시는 희망택시협동조합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 택시회사들의 대안으로 떠오를 것으로 기대한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희망찬 포부로 첫발을 내딛는 희망택시협동조합이 운수종사자의 소득증대와 일자리 확충 등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순조롭게 운영돼 어려운 택시업계에 새로운 경영모형을 제시하는 희망찬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택시업계 고충과 목소리를 경청하고 불편 사항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진성훈 기자

저탄소 친환경 기업    사람중심 가치창출 기업    투명하고 신뢰받는 기업    ESG 경영 선도 기업

# Action for Positive Change

## ESG

새로운 경험과 가치를 연결하는 혁신적인 금융투자 파트너

### 교보증권이 함께합니다

2021 한국거래소 코넥스시장 우수IB 선정  
2022 KRCA 최초발간부문 우수상 수상  
2023 KGE로인 대한민국 핀드어워드 투자자보호 부문 1위

교보증권은 변화하는 세상에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로 고객가치를 향상시키고 보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듭니다.

도전과 창의    고객중심    정직과 성실

※ 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증권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상품은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주식거래 시 온라인 매매 수수료는 0.1492%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 23호-02637호(2023.07.24 ~ 2026.07.23)

**KYOBO** 교보증권



# 클린스만호, 사우디 1-0 잡고 한숨 돌려

전반 32분 조규성 결승골 끝까지 지켜...막판까지 수비 불안에 '조마조마'



결승골 주인공 조규성

클린스만호가 사우디아라비아를 물리치고 데뷔 6경기 만에 첫 승전고를 울렸다. 위르겐 클린스만(독일)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 대표팀은 13일(이하 한국시간) 영국 뉴캐슬의 세인트 제임스 파크에서 열린 사우디와 평가전에서 전반 32분에 터진 조규성(미트윌란)의 결승 골을 끝까지 지켜 1-0으로 이겼다.

이어서 클린스만호는 6경기 만에 데뷔 승을 올렸다.

올해 2월 한국 대표팀 지휘봉을 잡은 클린스만 감독은 앞선 5차례(3무 2패) 경기에서 한 번도 승리를 지휘하지 못하던 터다. 한국은 클린스만 감독의 데뷔 무대 이던 3월 A매치에서 콜롬비아(2-2무), 우루과이(1-2패)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지 못했고, 6월 A매치에서는 페루(0-1패)에 지고 엘살바도르(1-1무)와 비겼다.

이어 지난 8일 웨일스전에서 0-0 무승부에 그치면서 클린스만 감독은 대한축구협회가 1992년 대표팀 전임 감독제를 도입한 이후 최다 경기 무승 감독이 되는 불명예를 썼다.

'외유·내입 논란'을 일으키며 팬들의 거센 비판에 직면한 클린스만 감독은 이날 승리로 분위기 반전의 기회를 어렵게 잡았다. 한국은 사우디와 역대 전적에서 5승 7무 6패를 기록하며 격차를 좁혔다.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에서 한국은 28위, 사우디는 54위다.

지난달 사우디 지휘봉을 잡은 '명장' 로

베르토 만치니(이탈리아) 감독은 전패로 9월 A매치 2연전을 마쳤다.

사우디는 지난 9일 코스타리카와 평가전에서 1-3으로 진 바 있다.

한국은 이날 전체 슈팅에서는 18대 7, 유효 슈팅에서는 9대 2로 크게 앞섰다.

그러나 패스 실수로 상대에게 좋은 득점 기회를 내주는 등 수비 조직력에서 다소 불안한 모습을 노출하기도 했다.

클린스만 감독은 웨일스전과 비교하면 홍현석(헨트) 대신 황희찬(울버햄프턴)을 투입하는 변화만 줬다.

홍현석은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대표팀 합류를 위해 귀국한 터다.

손흥민(토트넘)과 조규성이 다시 한번 '투 톱'으로 나섰다.

좌우 공격은 황희찬(울버햄프턴)과 이재성(마인츠)이, 중원은 황인범(즈베즈다), 박우영(알아인)이 맡았다.

수비라인에는 왼쪽부터 이기제(수원), 김민재(바이에른 뮌헨), 정승현, 설영우(이상 울산)가 배치됐고, 골키퍼 장갑은 김승규(알사바브)가 썼다.

한국 선수들은 그간 부진을 씻어내겠다는 듯이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상대 위협지역 공략에 나섰다.

한국은 전반 9분 세트피스 상황에서 약속된 플레이로 득점에 가까운 장면을 처음 만들었다.

왼쪽 코너 부근에서 프리킥으로 나선 손흥민이 땅볼로 내준 공을 이기제가 골

지역 정면에서 왼발 논스톱 슈팅으로 연결했고, 슈팅은 골대 왼쪽으로 살짝 빗나갔다.

전반 중반부터 사우디의 빠른 공격에 잠시 밀리던 한국은 전반 32분 상대 수비 실수를 틈탄 조규성의 헤더로 선제골을 뽑으며 다시 분위기를 바꿨다.

황인범이 전방으로 찔러준 패스를 알리 불라이히가 걷어낸다는 것이 위로 높이 튀었고, 조규성이 골대 왼쪽으로 향하는 헤더로 득점했다.

조규성의 A매치 통산 7호 골이자 클린스만 체제에서 넣은 첫 골이다.

지난해 11월 2022 카타르 월드컵 가나전 멀티 골 이후 10개월 만에 기록한 A매치 득점이기도 하다.

한국은 전반 36분 조규성의 패스를 받은 손흥민이 골키퍼와 일대일 상황에서 하산 탐박티의 태클에 걸려 넘어져 페널티킥이 기대됐지만, 주심은 휘슬을 불지 않았다. 기세를 탄 한국의 득점 시도는 계속됐으나 골키퍼 무함마드 우와이스의 잇따른 선방에 추가 골 기회가 무산됐다.

전반 41분 황희찬이 페널티아크에서 날린 땅볼 슈팅을 우와이스가 왼쪽으로 몸 날려 막아냈고, 이어진 이재성의 리바운드 슈팅도 우와이스에게 막혔다.

후반 10분에는 황희찬이 왼쪽에서 수비수 하나를 벗겨내고 때린 오른발 슈팅이 우와이스의 오른발에 걸렸다.

시간이 지날수록 창끝이 무뎠던 한국은 후반 23분 조규성, 황희찬을 빼고 황의조(노리치 시티)와 문선민(전북)을 투입하는 변화를 줬다.

후반 33분에는 이재성이 빠지고 강상우(베이징 귀안)가 그라운드로 들어갔다.

그러나 공격적인 교체 카드에도 클린스만호의 추가 골은 나오지 않았다. 외려 경기 막판 위험 지역 근처에서 범한 몇 차례 패스 실수가 상대 슈팅 기회로 이어지는 등 아슬아슬한 장면을 연출했다.

클린스만 감독은 후반 46분 손흥민, 황인범을 벤치로 불러들이고 오현규(셀틱), 이순민(광주)이 투입하며 1-0 승리를 마무리했다. / 최준용 기자

# 바르심·탐베리 불참...우상혁 다이아몬드 파이널 해리슨과 2파전

'현역 최고 점퍼' 무타즈 에사 바르심(32·카타르)과 2023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챔피언 잠마르코 탐베리(31·이탈리아)가 다이아몬드리그 파이널에 불참한다.

한국시간으로 17일 오전 3시 8분에 미국 오리건주 유진 헤이워드 필드에서 열리는 2023 세계육상연맹 다이아몬드리그 파이널 남자 높이뛰기 경기 우승 경쟁은 우상혁(27·용인시청)과 주본 해리슨(24·미국의) 2파전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유진 다이아몬드리그 조직위원회는 13일 다이아몬드리그 파이널 각 종목 최종 엔트리를 공개했다.

남자 높이뛰기 출전자 명단에 바르심과 탐베리의 이름이 빠졌다.

바르심은 2014, 2015, 2017년 등 총 3차례 다이아몬드리그 파이널 챔피언에 올랐고, 탐베리는 2021, 2022년 연속해서 파이널 우승을 거둔 강자다.



우상혁

세계 정상급 선수들이 출전하는 다이아몬드리그는 1년에 총 14개 대회를 치른다. 13개 대회에서 쌓은 랭킹 포인트 순위를 정해 '챔피언십' 격인 14번째 파이널 대회에서 최종 승자를 가린다. 각 대회 1~8위는 순위 따라 차례로 승점 8~1점을 받고, 총점 상위 6명이 남자 높이뛰기 다이아몬드리그 파이널 출전 자격을 얻는다.

바르심은 29점으로 1위, 탐베리는 15점을 얻어 5위로 다이아몬드리그 파이널 진출권을 손에 넣었다.

하지만, 탐베리는 "이번 시즌은 종료하기로 했다"며 다이아몬드리그 파이널 출전을 포기했다.

바르심은 불참 이유를 공개하지 않았다. 2017년 허리와 발목 부상으로 고전한 뒤 '시즌 경기 수'를 조절하는 바르심은 10월 4일 남자 높이뛰기 결선을 치르는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대비하고자 다이아몬드리그 파이널 출전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세계 최정상급 선수와의 경쟁'을 즐기는 우상혁은 바르심, 탐베리의 불참을 반기지 않지만, 우승 가능성은 더 커졌다.

우상혁은 최근 유진 다이아몬드리그 조직위원회와의 인터뷰에서 "다이아몬드리그 우승은 내 꿈 중 하나"라고 말했다. 꿈을 이룰 기회가 왔다.

우상혁은 올해 열린 다이아몬드리그 6개 경기 중 4개 경기에 출전했다.

/ 이윤호 기자

# 류현진, 480일 만에 QS...타선 침묵으로 텍사스전 패전투수 명에

6이닝 3실점 호투...잘 던지다 4회에 투런포 허용



호투하는 류현진

류현진(36·토론토 블루제이스)이 강타선을 자랑하는 텍사스 레인저스를 상대로 올 시즌 첫 퀄리티스타트(선발 6이닝 이상 3자책점 이하 투구-QS)를 달성했으나 팀 타선의 침묵으로 패전 투수가 됐다.

류현진은 13일(한국시간) 캐나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로저스센터에서 열린

2023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텍사스와 홈 경기에서 6이닝 5피안타(1홈런) 1볼넷 5탈삼진 3실점(3자책점)의 성적을 거두고 0-3으로 밀린 7회초 수비에서 교체됐다.

토론토는 상대 팀 베테랑 선발 투수 맥스 셔저에게 고전하다 결국 3-6으로 패

했고, 류현진은 시즌 3패(3승)째를 당했다. 류현진의 시즌 평균자책점은 2.65에서 2.93으로 소폭 올랐다.

류현진이 QS를 달성한 건 지난해 5월 21일 신시내티 레즈전(6이닝 무실점) 이후 480일 만이다. 류현진은 지난해 6월 왼쪽 팔꿈치 인대 접합 수술(토미 존 서저리)을 받은 뒤 지난 달 빅리그에 복귀했고, 최근 7경기에서 모두 5이닝 이하로 짧게 던졌다. 이날 류현진은 82개의 공을 던졌다. 직구(25개) 최고 구속은 시속 90.6마일(145.8km), 평균 구속은 시속 88.9마일(143.1km)을 찍었다.

체인지업(18개), 컷패스트볼(18개), 커브(16개), 싱킹 패스트볼(5개) 등 다양한 변화구도 골고루 던졌다. 토론토는 이날 패배로 MLB 아메리칸리그 와일드카드 2위 자리를 텍사스에 내줬다. MLB 포스트 시즌 진출권은 와일드카드 3위까지 주어진다. / 신민성 기자

**aT**가 함께 합니다

지속가능한 우리 농어업!  
잘사는 우리 농어업인!



국민의 내일을 위한 aT 혁신  
**보다 나은 우리 농식품**

전라남도 나주시 문화로 227  
대표전화 061-931-1114

**aT**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Korea Agro-Fisheries & Food Trade Corporation

# '1947 보스턴' 강제규 감독 "임시완 연기 보고 소름 돋았죠"

## 스포츠 소재로 한 영화 첫 연출... "막상 해보니 쉽지 않아"

올해 추석 연휴에 개봉하는 강제규 감독의 신작 '1947 보스턴'에선 배우 임시완의 연기가 빛을 발한다.

이 영화는 1947년 미국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 태극기를 가슴에 단 한국의 서윤복이 우승을 차지한 감동적인 실화를 스크린에 옮긴 작품이다. 서윤복 역을 맡은 임시완은 마라톤 선수의 표정과 동작 하나하나를 실감 나게 연기했다.

"제가 촬영하면서 (젊은 배우를 보고 속으로) '야, 요즘 봐라' 하면서 소름이 돋는 걸 느낀 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12일 서울 종로구의 한 카페에서 만난 강제규 감독은 촬영 현장에서 본 임시완의 연기를 이렇게 회고했다.

강 감독은 "(그때부터) 임시완이 (촬영장에) 나오는 날이 기다려졌다"며 "그가 나오면 에너지가 생겼다"고 말했다.

그는 "눈빛과 동작 하나를 봐도 불끈 불끈 에너지가 생기고 너무 신선했다"며 "그렇다고 과하지도 않고 시대감 속에서



'1947 보스턴'의 임시완

놓고 있는 듯 너무 자연스러웠다"고 돌아봤다.

강 감독은 "임시완에게 '네가 정말 서윤복이 돼야 관객들이 영화에 몰입할 수 있다', '우리 영화의 운명이 네 발에 달렸다'고 말하기도 했다"며 웃었다.

하정우는 일제 강점기인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딴 손기

정 역을 맡았다.

베를린 올림픽 때 일장기를 달고 시상대에 서야 했던 비운의 영웅 손기정은 서윤복의 감독이 돼 보스턴 마라톤대회에서 한을 푼다. 하정우는 이 영화의 이야기를 끌어가며 임시완을 더욱 돋보이게 한다.

강 감독은 "시나리오를 보니 하정우가 바로 떠올랐다. 제일 먼저 캐스팅한 배우

도 하정우였다"며 "성격으로 보나 외모로 보나 (손기정과) 닮은 점이 정말 많았다"고 말했다.

'1947 보스턴'에서 아쉬운 점은 서윤복의 코치인 남승룡 역의 배성우가 2020년 음주운전 물의를 빚은 사실이다. 이 영화의 촬영이 끝나 배성우가 등장하는 장면의 편집이나 재촬영이 불가능한 시점이었다.

강 감독은 당초 이 영화를 지난해 추석 연휴 때 개봉하려고 했지만 1년 미룬 것도 이 사건을 고려한 결정이었다며 "(당시 개봉은) 관객들에게 예의가 아닌 것 같았다. 조금 속이 쓰렸지만 좀 더 인고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했다"고 털어놨다.

강 감독은 최초의 한국형 블록버스터로 통하는 '쉬리'(1999)와 한국 전쟁영화의 대표작으로 꼽히는 천만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2004)로 관객들의 사랑을 받았다. / 이준성 기자



왼쪽부터 배우 고아성·고아라

### 고아성, 부상으로 '춘화연애담' 하차...고아라 대신 합류

배우 고아성이 부상으로 티빙 새 시리즈 '춘화연애담'에서 하차한다.

티빙 관계자는 "배우 고아성씨가 부상으로 인해 작품에서 하차하고 대신 고아라씨가 새롭게 합류한다"고 12일 밝혔다.

고아성은 개인 일정 중 생선 천주골 골절로 전치 12주를 진단받고 병원에 입원했다. 의료진 소견에 따라 당분간 치료에 전념하게 되면서 하차를 결정했다. / 남유정 기자

고아성의 자리는 고아라가 대신한다. 남편을 직접 낙점하는 '부마 직간택'을 선언한 왕실 직통 공주 화리 공주를 연기한다.

'춘화연애담'은 가상의 국가인 동방국을 배경으로 화리 공주가 남편을 직접 찾기 위해 궁궐 밖으로 나오면서 벌어지는 일을 다룬 로맨스물이다. 구체적인 공개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 남유정 기자

### BTS 정국 '세븐', 빌보드 글로벌(미국 제외) 8주 1위



그림 방탄소년단(BTS) 정국의 솔로곡 '세븐'이 미국 빌보드 '글로벌(미국 제외)' 차트에서 8주 연속 1위를 차지했다. 12일(현지시간) 공개된 최신 차트에 따르면 이 노래는 차트 집계 기간인 지난 1~7일 미국을 제외한 국가들에서 8천 380만 스트리밍과 3천 판매량을 기록해 정상을 유지했다.

'세븐'은 '글로벌 200' 차트에서는 7주 1위를 지킨 끝에 한 계단 내려와 2위를 기록했다. 12일(현지시간) 공개된 최신 차트 '세븐'은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는 전주보다 아홉 계단 하락한 37위로 8주 연속 진입했다. 같은 차트에서는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의 글로벌 히트곡 '큐피드'(Cupid)가 45위로 25주 연속 이름을 올렸다.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는 뉴진스의 두 번째 미니음반 '겟업'(Get Up)이 28위, NCT 드림 정규 3집 'ISTJ' 156위, 스트레이 키즈 정규 3집 '파이스타'(★★★★★)가 157위를 각각 기록했다. / 김효진 기자

### 한강경찰대 활약 다룬 '한강' 디즈니+ 공개



배우 이상이는 범죄의 흑막이자 한강경찰대에 맞서는 '경인 리버크루즈'라는 회사의 이사인 고기석 역할을 맡았다.

제작진은 "경찰이라는 직업과 범죄 수사는 영화와 드라마에서 끊임없이 다뤄진 주요 소재이자 아이템이었

지만, 한강경찰대를 다룬 작품은 없었다"며 "한강"은 한강경찰대의 세계를 본격적으로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밝혔다.

연출을 맡은 김상철 감독은 "준비한 작품이 무산돼 답답하던 시기에 한강을 건다가 투신 사건을 목격했다. 처음 보는 파란 유니폼을 입은 한강경찰대가 사람을 구조하는 모습을 봤다"고 연출을 맡은 계기를 설명했다. '한강'은 총 6부작이며 13일부터 매주 수요일 두 회차씩 공개된다. / 백도경 기자

'한강'은 한두진(권상우)을 필두로 한강경찰대 소속 경찰관들이 한강에서 벌어진 범죄를 파헤치는 과정을 다룬다. 배우 김희원과 배다빈, 신현승, 성동일이 두진의 동료 경찰을 연기한다.

### 대중상영화제 11월 15일 경기도서 개최

#### 부문별 후보작은 내달 중순 공개

국내 영화 시상식으로는 가장 긴 역사를 가진 대중상영화제가 오는 11월 15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아트센터 대극장에서 개최된다.

대중상영화제를 주최하는 한국영화인총연합회는 12일 서울 광진구 건국대에서 미디어데이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59회 대중상영화제 개최 계획을 공개했다.

연합회는 이번 영화제의 키워드로 '새로운 대중상'과 '공정한 대중상'을 내걸었다. 이를 위해 스타 위주의 대중상을 지양하고, 참여의 폭을 넓히기로 했다. '대중이 주목한 시선상'의 대상도 단역 배우, 스타트 배우, 보조 스태프 등으로 확대한다.

또 사회 각 분야의 유명 인사를 흥보

대사로 위촉해 대중적 관심을 확산하기로 했다. 흥보대사엔 배우 이순재도 포함됐다. 대중상 심사는 예심과 본심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평단과 기자단이 참여하는 예심에서 지난해 10월 1일~이달 30일 개봉작을 대상으로 5~6배수의 후보작을 추리고, 본심에선 전문 심사위원단과 국민심사위원단이 수상작을 선정한다.

국민심사위원단은 온라인 신청을 받아 선발한 100명으로 구성한다. 이들은 대중이 주목한 시선상 투표권도 가진다.

지난해엔 1만명의 국민심사단 구성에 대체불가토큰(NFC) 발행 방식을 도입해 논란이 됐다. 이와 관련해 이장호 통합위원장과 양윤호 집행위원장은 이날 NFC 전량 회수 방침을 밝혔다. / 박소희 기자

**검찰연합일보** www.unionilbo.com

---

회장·발행인 송원기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여의도동) 국회본관 175  
 편집인 최두한    대표전화 1533-1545 / 팩스 0508-9192546  
 인쇄소 아이피디    E-mail unionilbo12@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서남영    등록번호 서울,아53015 서울,가50142

---

구독 광고 문의 : 1533-1545 / 구독료 : 월 15,000원, 1부 800원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세무법인 명인 구로중앙유통점

경영에 필요한 전문적인 세무상담

세무법인 명인 구로중앙유통점

세무법인 명인 구로중앙유통점

예규, 판례 등의 지식과 다년간의 경험을 기반으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업무수행을 약속 드리며, 정확하고 문제없는 세무신고 및 컨설팅을 진행하는 것이 저희 세무법인 명인 구로중앙유통점의 기업이념입니다.

친절하고 정확한 업무처리, 원활한 소통, 빠른 피드백 등 고객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최선의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고객 여러분께서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조세불복지원

경정청구

상속, 증여세 자문

세무조사지원

세무신고

**| 주소 |**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1258 업무 A동(신한은행 건물) 10층  
**| 전화 |** 02)532-0456    **| 팩스 |** 02-532-0121

금융으로 세상을 **이**롭게



# 신한이 청년을 응원해

청년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신한이 주거비 및 학습공간을  
적극 지원해 드립니다

**지금, '신청해'를 신청하세요!**

## 신한이 청년을 응원해 '신청해'



대상: 고용노동부 직업교육훈련과정에 참여하는 비수도권 출신 취약계층 청년 2,000명  
내용: 수도권\* 거주 부담 완화를 위한 주거비용 지원 및 학습공간 이용비 지원  
신청기간: 2023년 9월 18일 ~ 10월 9일 (3주간)  
신청접수: [www.shinchunghae.co.kr](http://www.shinchunghae.co.kr)

\*수도권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를 통틀어 지칭함



World EXPO 2030 |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신한금융그룹이 응원합니다  
BUSAN, KOREA

신한은행 신한카드 신한투자증권 신한라이프 신한캐피탈 신한자산운용 제주은행 신한저축은행  
신한자산신탁 신한DS 신한펀드파트너스 신한리츠운용 신한SI 신한벤처투자 신한E7손해보험

+ 더 쉽고 편안한, 더 새로운 금융  신한금융그룹